

안보현 “힐링 영화...연기 변신도 새로웠죠”

‘악마가 이사왔다’ 어수룩하고 착한 청년 백수 연기...“작품으로 가장 크게 얻은 건 자신감”

“촬영 후반부에 찍은 어떤 장면에서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눈이 너무 많이 붓는 바람에 시간을 가진 뒤에 재촬영했던 기억이 있어요.”

‘악마가 이사왔다’에서 청년 백수 길구를 연기한 배우 안보현은 촬영 당시의 어떤 순간을 이렇게 돌아봤다.

안보현이 언급한 장면은 길구가 격한 감정을 표출하지 않는 대목이지만, 극 중 인물들과의 관계에 워낙 몰입하다 보니 배우로서 울컥하는 지점이 있었다고 한다.

최근 만난 안보현은 “전날 시사회에서 처음으로 완성본을 본 여운이 아직

남아있다”며 “관객들도 영화를 보고 힐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악마가 이사왔다’ 속 길구는 회사생활을 버텨내지 못하고 퇴사한 뒤 자리를 잡지 못하다 아랫집에 이사 온 선지(임윤아)를 보호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인물이다. 내세울 장점은 딱히 없지만 천성이 순하고 ‘무해한’ 인물로 그려진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복싱 선수로 활동하고, 지난해에는 영화 ‘베테랑 2’에서 강렬한 액션 연기를 선보인 안보현에게 어수룩하고 착한 길구 역학은 신선한 변신이었다고 한다.

안보현은 “여태껏 했던 강인한 역할들과는 상반되는 캐릭터라 도전하는 입장으로 임했다”고 돌아봤다. 이어 “잠시 길을 잃은 백수지만, 누군가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캐릭터라는 점이 좋았다”고 했다.

연기 스펙트럼을 넓힌 것은 배우로서 큰 성과이기도 하다.

안보현은 “작품으로 가장 크게 얻은 건 자신감”이라며 “앞으로도 다른 장르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잘 놀라고 당황하는 길구 특유의 ‘오’하는 얼굴은 이상근 감독이 직접 시연



안보현 < CJ ENM 제공 >

감독님이 직접 표정 묘사를 해주신 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말했다.

‘악마가 이사왔다’는 2년 전 촬영을 모두 마쳤지만 후반 작업에 시간이 걸려 오는 13일 개봉하게 됐다. /연합뉴스

해 준 표정을 참고해 연기했다.

안보현은 “길구의 말투나 표정, 톤의 높낮이 등에 이상근 감독님이 많이 투영돼 있다”며 “감

KBS ‘다큐 3일’ 종영 3년 만에 특별판

안동역에서 다시 만나자던 10년 전 약속 덕에 종영 다큐멘터리가 잠시 되살아나게 됐다.

KBS 측은 22일 오후 10시 2TV에서 ‘다큐멘터리 3일 특별판 - 어바웃 타임’ 편성이 확정됐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다큐멘터리 3일’은 KBS 2TV에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방송된 시사교양 프로그램이다.

3년 전에 종영한 프로그램이 특별판으로 다시 시청자와 만나게 된 것은 2015년 방영분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기 때문이다.

당시 안동역 편에서 기자 여행 중이던 여대생 두 명과 PD가 10년 뒤에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는데, 이 영상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제가 된 것이다.

촬영 중 재회를 약속한 PD는 이미 KBS를 그만둔 상태다. 두 여대생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아 10년 전 약속이 과연 지켜질지는 미지수지만 그 과정이 모두 특별판에 담길 예정이다.

KBS는 ‘다큐멘터리 3일’ 프로그램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2015년 8월 15일의 약속. 2025년 8월 15일 여기서 만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으로 떠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던 여대생 두 명과 PD가 10년 뒤에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는데, 이 영상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제가 된 것이다.

촬영 중 재회를 약속한 PD는 이미 KBS를 그만둔 상태다. 두 여대생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아 10년 전 약속이 과연 지켜질지는 미지수지만 그 과정이 모두 특별판에 담길 예정이다.

KBS는 ‘다큐멘터리 3일’ 프로그램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2015년 8월 15일의 약속. 2025년 8월 15일 여기서 만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으로 떠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최연태의 오늘의 운세		음력 6월 18일 천문역원 (062)673-2427
子	쥐띠: 충동이 있고 하는 일마다 장애가 따른다. 36년생 어떤 어려움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헤쳐나가기 바란다. 48년생 자신을 스스로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날이다. 60년생 계획적인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지출 명세를 머릿속으로라도 떠올려 보는 게 좋겠다. 72년생 오로지 진지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자. 84년생 언행에 주의하고 참는 게 좋겠다. 96년생 자신이 하는 일에서 인정받을 것이라고 고개를 먼저 숙이도록 하라. 08년생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하게 되는 날이다. 행운의 수: 47 행운의 색: 빨간색	
丑	소띠: 노력하는 만큼 충분한 대가를 얻게 되는 날이다. 37년생 큰 이득수가 있으니 덕을 많이 쌓아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라. 49년생 인덕이 있다고 과신하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 61년생 여운돈이 있다면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어딘가이라도 좋으니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73년생 금전지출을 감수해야 하며 소조롭다고 여겨지는 일들이 때로는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85년생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덕을 쌓고 주변에 겸손해지도록 하라. 행운의 수: 29 행운의 색: 주황색	
寅	호랑이띠: 기다림이 길어지니 몸과 마음이 힘들어진다. 38년생 호사다마라 일이 너무나 순조로우면 자신의 힘을 과신하기 쉽다. 50년생 힘든 상황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작용하게 될 수 있으니 마음을 놓아도 되겠다. 62년생 공공 기관과 관련된 일은 주위가 필요하다. 74년생 새로운 희망이 보이는 운이므로 기본적으로 명랑하게 되고 주위에도 사람이 모여든다. 86년생 자금 당산은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다. 저돌적이고 두려울 것도 없다. 98년생 상대에게 많은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니니 생각해보자. 행운의 수: 15 행운의 색: 흰색	
卯	토끼띠: 현재 주위에 많은 운이 도사리고 있으나 일시적으로 잠을 자는 시기이다. 39년생 소망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시기로 때를 기다리며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51년생 모든 일에 순리대로 하면서 확고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라. 63년생 대화를 통해 큰 소리보다는 소곤소곤 작은 소리로 진행을 하도록 하라. 75년생 원칙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일의 성과가 따를 것이다. 87년생 어려움이 있거나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선배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99년생 약속을 잊어버리면 방향을 하게 된다. 행운의 수: 29 행운의 색: 자주색	
辰	용띠: 사업자는 지금이 들어오고 구직자는 일을 얻는다. 40년생 양보와 부드러움으로 세상을 대하면 복록이나 동쪽에서 좋은 소식을 전할 것이다. 52년생 생각보다 많으나 실현 가능성이 없으니 일찍 단념하라. 64년생 집안에 혹은 시끄러운 일이 생길 징조니 모두 모두 함식하여 조심할 일이다. 76년생 여자하면 행운도 잡고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는 멋진 운이다. 88년생 가끔은 남의 이야기도 귀담아 듣는 게 좋다. 00년생 오전에 많은 일을 하고 오후엔 휴식을 취하라. 행운의 수: 15 행운의 색: 보라색	
巳	뱀띠: 어둠에 광명이 들어오고 만복이 찾아온다. 41년생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나면 조금 허탈해질 수 있겠지만 너무 주눅 들지 않도록 하라. 53년생 조그마한 손실에 마음을 두지 마라. 65년생 독단적인 결정으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잘 참아야 하겠다. 77년생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일이 많아 머리가 아프다. 89년생 사소한 일로 생기는 시비에 유의하라. 비밀이 있으면 끝까지 지켜라. 01년생 승부사 기질을 발휘해서 모처럼의 기회를 살려라. 행운의 수: 07 행운의 색: 검은색	
午	말띠: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했던 일이 헛수고가 된다. 42년생 파분함과 나른함으로 가득하다. 54년생 뿌린 만큼 거둬들이게 되는 하루이니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66년생 손에 잡힐 듯 말듯 잡히지 않던 것을 손에 넣게 될 수 있다. 78년생 좋은 말과 겸을 안고 전령터에 나가는 장수와 같은 운이다. 90년생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금까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02년생 당신에게 매일리던 상대에게 오히려 당신이 매달리게 되는 역전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 행운의 수: 23 행운의 색: 노란색	
未	양띠: 정신적 피로가 있을 수 있으나 몸을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게 좋겠다. 43년생 책임을 회피하려 들지 말고 당당하게 인정하라. 55년생 시도하는 일에 무리가 따르는 날이 될 것이다. 67년생 자신을 자유롭게 풀어줄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 맘에 드는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 드는 당신을 골라라. 79년생 마음이 평화롭고 매사에 자신감 넘치는 날이 될 것이다. 91년생 새로운 사람에게 보내는 당신의 정성을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줘야 한다. 03년생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더라도 너무 서둘러서 관계를 진전시키지 않는 게 좋겠다. 행운의 수: 45 행운의 색: 파란색	
申	원숭이띠: 기세가 강하므로 어려움은 없지만 대수롭지 않은 일로 인해 다른 사람을 호되게 공격할지 모른다. 44년생 막연한 소원은 기대하지 않는 게 좋겠다. 56년생 소원은 자기 혼자만 알고 행동은 숨기는 게 좋다. 68년생 계획하고 벌이기보다 지키고 점검하며 쉬어가는 지혜를 배우도록 하라. 80년생 가장 내에서 서로 믿음이 필요할 때이므로 마음을 열고 확실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92년생 독단적이거나 혹은 이기적 사고임을 기억하고 자중해야 할 것이다. 04년생 태만하거나 게으르면 이 운을 다 취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라. 행운의 수: 79 행운의 색: 황금색	
酉	닭띠: 큰 발전하기를 기대하기보다 현상 유지에 만족하길 바란다. 45년생 힘을 때는 가까운 사람과 대화나 메시지를 교환하라. 57년생 자성으로 공격하고 세상을 살아가야 실수가 적다. 69년생 사소한 어려움이 따르며 운전하는 사람은 도로에서 시비에 휘말린다. 81년생 우유부단함으로 인하여 남에게 속을 수 있는 운이니 매사 신중한 상황판단이 필요하다. 93년생 직장에 실증을 느꼈다면 직업을 바꿔보려고 전직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 있는 날이다. 05년생 내 존재가 주위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행운의 수: 17 행운의 색: 민트색	
戌	개띠: 분수를 지키면서 행동한다면 만나는 사람마다 좋다. 46년생 대립이 강한 문제로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58년생 본인과 무관한 일이라고 등한시했다가 이 때문에 망신을 당할 수 있다. 70년생 태평성대를 맞이하니 집안이 편안하며 하는 일이 순조롭다. 82년생 자기 과신에 차 있는 행동이 외견으로 나타나기 쉬운 날이다. 94년생 현재의 흐름에 어떤 변화도 주지 않는 게 좋다. 사랑의 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06년생 공부할 하는 학생에게는 모처럼의 행운을 잡지 못하는 수가 있겠다. 행운의 수: 04 행운의 색: 주황색	
亥	돼지띠: 도난이나 소지품 분실에 주의하라. 35년생 자신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마라. 47년생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는 법이다. 59년생 비상한 재주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 71년생 안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곳도 없으니 우울한 기분이다. 83년생 대체로 안정한 가운데 주변에서 신망을 받게 된다. 95년생 한다고 하는 데도 상사의 꾸지람이 있어 의욕을 잃을 수 있다. 07년생 주변이 고요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조용한 하루가 될 것이다. 행운의 수: 15 행운의 색: 초록색	

tbN 광주교통방송 FM 97.3MHz	광주 FM97.3MHz, 전남 동부권 FM103.5MHz 청취자 참여전화 080-9701-333 수신자부담 무료 교통재보전화 080-333-8000
● 주요 프로그램 안내	
출발! 광주대행진 (07:00~08:53) 프로듀서: 정희준 진행자: 노혜설 작가: 박지영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광주교통방송의 아침 대표 교통정보 프로그램으로 재난과 교통 위주의 정확하고 생도감 있는 출근길을 책임집니다.	남도매거진 (16:05~16:55) 프로듀서: 이진아 진행자: 장원나 작가: 김시영 광주·전남 지역의 주요 이슈와 정보, 인물, 문화를 다양하게 다루는 지역밀착형 종합정보 프로그램. 남도가 빠지면 섭하지라~
tbN 차차차 (14:05~15:53) 프로듀서: 권유경 진행자: 윤지현 작가: 정안숙 즐거움전은 이제 그만~ 오후의 나른함을 타파하는 시간! 충겨운 트로트 노래와 신나는 코너로 즐거운 길벗이 되어드립니다.	달리는 라디오 (18:05~19:53) 프로듀서: 김미경 진행자: 최유경 작가: 한효정 복잡한 퇴근길의 편안한 친구 같은 방송! 광주교통방송의 저녁 대표 교통정보 프로그램으로 더 안전하고 더 신속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KCTV 광주방송 KCTV광주방송 채널 5번 뉴스제보 FAX) 062-417-5041 www.kctv.co.kr	◆이번 주 주요프로그램◆ TV커머스 우리 동네 우리 장터 <포항 축축 노가리> 케임을 방송의 '가성비 TV커머스 방송'. 그냥 구워먹어도 튀겨먹어도 후춧속에 해 먹어도 맛있는 포항 축축 반건조 노가리를 소개한다. 방송 : 8월 11일(월)~8월 15일(금) 6:00~7:00, 16:00~17:00
프로그램 안내	KCTV초대석 <김석기 광주지방보훈청장 편> 광복 80주년을 맞아 해 김석기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초대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보훈청이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계획에 대해 듣고, 대한민국 역사 속 보훈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방송 : 8월 13일(수), 16일(토) 11:15~11:45
KCTV뉴스 (19:00~19:20, 23:00~23:20) 지역의 주요 뉴스와 동네 소식 그리고 광주광역시와 동구, 북구 등 지자체 뉴스 방송.	S0네트워킹 <오 정해 보고 전북 남원 편> 소리꾼이자 방송인인 오정해씨가 전북 남원의 곳곳을 다니며 우리가 미처 몰랐던 남원의 매력과 전통문화를 온전히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공간들과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방송 : 8월 14일(목), 16일(토) 13:00~13:50
포토힐링타임 아름다운 자연과 인물을 담은 사진을 재구성한 영상 앨범. 아마추어 사진작가, 전문 활동가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출발VJ시대 (12:30~12:50, 20:30~20:50, 04:30~04:50) 시청자들이 직접 촬영하고 만든 아마추어 방송인들의 뜻뜻하고 생기 넘치는 영상제작물을 만나본다.	